

2020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취업 및 인턴수기 공모 우수 사례집



CONTENTS

IBK기업은행 취업.....	1
전남대병원(행정직) 취업.....	5
전남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	9
7급 공무원(지역인재 7급수습직) 합격.....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인턴.....	15
한국전력공사 취업.....	19
광주여성가족재단 인턴.....	23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인턴.....	25
한국콘텐츠진흥원 취업.....	27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턴.....	30
스포츠토토코리아 취업.....	33
해남자연농업영농조합법인 취업.....	3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39

IBK기업은행 취업수기

자신감을 갖고 간절함을 보여주자

중어중문학과 나○○ (2020.02.졸업)

기본스펙 및 대학생활	평균 평점	3.63
	외국어 성적	오픽IH, 오픽중국어AL, HSK6급
	인턴 또는 현장실습	코트라 창사무역관 6개월, 잇츠스킨 상해법인 2개월
	자격증	유통관리사 3급
	직무관련 아르바이트	CGV아르바이트, 근로장학생, 게스트하우스 운영
	기타	경제학부 복수전공, 아트광주 18, 19 통역, 한중문화교류동아리 청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14학번 나○○입니다. 제 수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소서나 면접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취업지원실 선생님을 통해 연락주세요!

1. 취업준비의 시작

취업준비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학교수업도 중요하고,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나의 진로를 찾는 것입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나의 취향과 업무스타일을 판단할 수 있으며,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회사에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를 다니며 학과실과 취업지원실 등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저는 괜히 지나가다가 학과실이나 취업지원실에 가서 인사도 한 번씩 드리고 상담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알 수 있었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인턴도 다녀올 수 있었으며, 나아가 자기소개서 첨삭과 면접까지 도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취업하고 나서 뒤돌아보자면 금융권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저의 스펙과 대학생 활동 덕분에 오히려 제가 뽑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를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며, 왜 내가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기업은행”이어야만 했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2. 기업은행 채용 절차

IBK기업은행 채용 프로세스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

기업은행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서류전형

먼저 자기소개서는 최대한 자신을 보여주려고 해야합니다. 따라서 저는 자기소개서

를 쓰기 위해 살아왔던 과정을 기간 순으로, 사건 별로 정리를 했고, 엑셀파일로 경험을 세분화시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리를 통해 어떤 기업의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준비할 때에도 다양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신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기업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스토리를 기업에 맞게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원하는 기업과 그 산업군의 뉴스와 회사홈페이지를 통해 인재상과 목표 등을 파악하여 나의 스토리와 맞게 녹여낸다면 충분히 간절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더 완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보여주는 것은 부끄럽지만, 다양한 시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질문과 수정을 통해 면접까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필기전형

저는 보통 서류를 제출하자마자 필기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필기공부는 주로 스테디를 통해 진행하곤 하였습니다. 혼자서는 의지가 부족하기도 했고, 다양한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서로의 방법을 통해 더 나은 자신만의 문제해결 방법을 만들고, 풀어나간다면 금방 NCS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매3비처럼 수능 비문학책으로 공부를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필기전형은 시간싸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읽기 위해 비문학 문제를 푸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NCS비중이 줄었고, 주관식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금융상식과 경영경제 기초문제를 학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상식같은 부분은 매일 읽었던 매일경제 신문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TESAT을 통해 경영 경제 기초문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필기전형은 시간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문제는 빠르게 넘길 수 있는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실기시험(1차면접)

평소 기업은행은 1박 2일 합숙면접을 진행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1일면접으로 바뀌었고, 강당으로 모여 11명이 한조, 3~4인이 한 팀이 되어 함께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 -> 추론 -> 인성 + 경영/경제 각1문제 (30분)

먼저 토론은 진행 방식 설명 자료(2분) > 주제선정(3분) > 준비(3분) > 토론(15분)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모든 것을 즉석에서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토론주제는 회사와 관련 없는 주제로 선정하게 하였고, 주제를 선정한 후, 찬반을 나눠 토론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재난지원금의 추가지급에 관해 토론을 하였고, 저는 추가지급을 찬성하는 측에서 토론했습니다.

두 번째로 추론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추론면접은 '멀티페르소나'라는 주제를 주었고, 마지막 결론 문장을 "K-트로트 열풍

처럼 K문화 확산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정해주었습니다. 자신의 순서는 미리 알 수 없으며, 8분간 준비시간을 갖고, 개인당 2분씩 발표시간을 주었습니다. 8분이 끝난 후 추첨을 통해 자신의 순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필기시험은 경영과 경제 중 한 문제를 골라서 풀게 하였고, 다른 팀들이 면접을 보는 동안 강당에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면접관님이 면접 때 시험지를 들고 온다고 하셔서 긴장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본 필기 시험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성면접은 1:1로 15분간 진행하며, 인사팀의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1:1이지만 다:1의 느낌도 나는 면접이었습니다.

자소서 기반 질문도 하지만 회사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전공지식도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잘 모르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지 깊게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처음엔 아이스브레이크를 해주시면서 시작하지만, 꼬리질문이 깊게 들어왔습니다.

Q. 기업은행의 장단점에 대해 분석해보아라

-> 예대마진을 언급하셨는데 신예대율에 대해 아는가?

-> 그렇다면 비이자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 다른 은행들은 수수료를 줄이고 있는데 기업은행이 수수료를 늘려도 되겠는가?

이런식의 꼬리질문이 많았습니다.

또한 개인 자소서 기반 질문으로

Q. 코트라 인턴을 한 이유는?

-> 어떤 기업에서 본인을 원할 것 같나?

-> 스펙을 보면 금융권과 큰 관련이 없는데 왜 금융권을 생각하게 되었나?

Q. 일주일동안 카드 몇 개 팔 수 있겠는가?

Q. 수익성 vs 공공성 어떤 것이 중요할까?

Q. 기업금융 vs 개인금융 어떤 것을 하고 싶나?

Q. 본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업은행은 1차면접중에 자기소개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최종면접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와 존경하는 인물, 입행 후 포부등을 미리 생각해서 간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면접 같은 경우는 꾸준히 몇 달간 토론면접스터디를 통해 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토론면접같이 단기간에 공부하기 어려운 면접을 꾸준히 준비하며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면 별 탈 없이 면접을 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은행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을 통해 저의 '간절함'을 보는 자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보았고, 얼마나 많은 상상을 해보았는지를 통해 '간절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면접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면접시험(2차면접)

마지막 관문인 최종면접입니다. 1.3:1이라는 비율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면접입니다. 0.3에 들어간다면 다시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란 부

답감과 함께 1차면접에서 작성한 나의 자소서가 완벽하게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2차면접은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해야하며 면접 시작 직전에 이 자리에 오게된 20초 소감을 추가하라고 하여 저는 준비해갔던 마지막 한마디를 추가하였습니다. 2차면접은 처음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1차면접에 작성한 자기소개서 바탕으로 질문이 이루어졌고, 부행장님 두 분과 외부면접관님 두 분 그리고 인사팀장님 총 5분이 들어오시며, 면접자는 총 7명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Q. 중국에서 학창시절을 얼마나 보냈고, 어떤 것을 배웠는지

-> 중국어로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Q. 15kg감량을 어떻게 했나요?

-> 단점인 번아웃 현상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Q. 열정을 발휘한 사례

Q. 광주, 호남의 특징

-> 광주형일자리의 특징, 광주의 기업들이 광주형일자리를 좋아하나?

이러한 질문을 한 분당 하나씩 하시고 그에 관련된 꼬리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종면접에서는 역량보단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1분자기소개에 관련된 질문도 많았습니다. 뛰어난 사람을 뽑는다는 느낌 보다는 그냥 지원자와 대화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 고진감래

취준을 할 때,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존감을 통해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 필기, 면접 등 다양한 관문에서 잃기 쉬운 자존감을 목표 달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최종면접에서 떨어지고 나서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15kg 감량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고, OPIC과 같은 자격증 시험 등 저만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 시간이 부족하면 무등산 서석대 등반을 등반하며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깨지기 쉬운 멘탈을 잘 붙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면접에서 떨어지고 나서 한참 코로나로 인해 취업시장이 조용할 때, 교수님을 통해 중소기업 채용 추천을 받았고, 면접도 보았습니다. 면접을 합격했지만, 부모님과 선배들의 조언으로 조금 더 목표를 위해 노력해보자고 입사를 포기하였습니다. 힘든 취준 과정에서 그 선택을 후회하기도 하였지만, 꾸준히 노력하여 결과적으로 제가 가장 희망했던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낸다면, 꿈에 그리던 취업이라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남대병원 행정직 취업수기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다

영어영문학과 이○○ (2021.02.졸업예정)

기본스펙 및 대학생활	평균 평점	3.52
	외국어 성적	토익 925 / 토스 7
	봉사활동	교육 멘토링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1급/ 워드프로세서1급/ 한국사/ 한자2급
	기타	국내 교류학생/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안녕하세요? 유난히도 추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고용 한파’라고 불릴 만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21년 2월 졸업을 앞둔 영어영문학과 이○○라고 합니다.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하면서 공기업 준비를 했고, 운이 좋게도 작년 8월 전남대학교병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시는 학우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부족하지만 그동안 준비해왔던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하니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성향과 준비해야 하는 시험의 유형 등을 고려했을 때,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중에서 공무원 보다는 공기업이 저와 잘 맞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기 앞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 요건(컴퓨터활용능력, 토익, 토익스피킹, 한국사)들을 갖추었습니다. 인턴은 따로 하지 않았으나, 아르바이트나 국내 교류학생/ 해외 교환학생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경험들을 자기소개서에 곁들였습니다. 저는 2018년 하반기부터 필기 시험장의 분위기를 느껴보며 본격적으로 취준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필기 시험에 대하여

공공기관 취업에 있어서, 가장 큰 산은 필기 전형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불성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1차 서류 전형은 패스할 수 있습니다.(스펙이나 자소서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기업들은 제외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필기 전형의 경쟁률이 사무직의 경우 200:1 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서류만 내고 시험을 안 보러 오는 사람들과, 시험일이 겹쳐서 못 오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허수가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1 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게 되면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필기시험을 치실 때는 긴장을 최대한 푸시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자신을 믿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공공기업의 종류를 파악하면서 희망 기업의 필기 전형을 통과하기 위해 전공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대부분 사무직은 경영(경영학,경제학), 법정(행정학,행정법) 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기업마다 다르고, 한 기관에서도 문제 출제하는 외부 업체에 따라 상/하반기의 시험 유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전형이 대부분 통과되는 요즘 공기업 시험에서는 일단 필기시험에 최대한 많이 응시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의 감을 익히시면서 기업의 시험 유형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경영 직렬은 보통 CPA 수준까지, 법정 직렬은 공무원 기출 수준까지 준비를 해야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행정학과 행정법을 시험보는 기업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행정학은 신용한 & 김종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번 회독했고, 행정법은 써니행정법으로 공부하며 9급, 7급 공무원 기출문제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 시험보다는 공기업 시험이 예측할 수 없어서 준비하기에 더욱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정형화된 기출 문제에서 벗어난 느낌이고, 개념 위주로 묻는 기업이 있는 반면 판례 위주의 시험 유형을 출제하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 다시피 원하는 기업의 시험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전공 시험 준비와 함께 NCS 스테디를 했습니다. 스테디원들과 시간을 재고 실전처럼 문제를 풀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정확도를 높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보통 언어/수리/문제해결능력/자원관리능력에서 문제가 출제되는데, 다양한 전공의 스테디원들을 만나, 각자 약한 영역의 문제풀이 팁을 공유했습니다.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 후에 답만 체크하지 마시고 더 빨리 접근하는 방법 등을 같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NCS 시험과 같은 스타일에 약한 편이라, 취업 준비 후반으로 갈수록 전공 80%, NCS 20%의 비중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NCS는 하루에 많은 양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 준비에 대하여

꾸준히 전공과 NCS 공부에 매진하다보면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는 날이 옵니다. 필기 점수가 최종 합격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필기 합격 후 면접부터는 허들식(이전 단계의 점수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채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잘 파악하시고, 전략을 세워서 면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인성 면접을 보는 기업, 인성&PT 혹은 토론면접까지 보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면접 스타일을 파악하시고, 기업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활용하시면 경영진들이 현재 어느 부분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이것이 곧 면접 질문과 연계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진행하는 취업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기업 채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아래에는 제가 실제로 시험에 응시했던 공공기관을 표로 정리하여,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명	서류	필기(시험 유형)	면접
2018	인천국제공항공사	합	불(행정학+NCS)	
하반기	한국전력공사	합	불(NCS)	

	기업명	서류	필기(시험 유형)	면접
	서울주택도시공사	합	불(행정학+NCS)	
	농어촌공사	합	불(행정학+NCS)	
2019 상반기	광명도시공사	합	합(인성검사+일반상식+영어)	불(경쟁률5:1)
	전북대학교병원	합	합(행정학)	불(경쟁률4:1)
	한국마사회	합	불(행정학+NCS)	
	한국환경공단	합	불(행정학+행정법+NCS)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합	불(NCS)	
	구리농수산물공사	합	불(행정학+행정법+NCS)	
	한국지역난방공사	합	불(행정학+한국사+NCS)	
	부산대학교병원	합	불(병원행정학)	
	한국전력공사	합	불(NCS)	
	서울교통공사	합	불(NCS)	
2019 하반기	한국도로공사	합	불(행정학+행정법+헌법+NCS)	
	서울주택도시공사	합	불(행정학+NCS)	
	서울시설공단	합	불(행정학+행정법+NCS:2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합	불(행정학+행정법+NCS)	
	화성도시공사	합	합(행정학+행정법+NCS)	불
2020 상반기	수원도시공사	합	불(행정법+영어+NCS)	
	한국환경공단	합	불(행정학+행정법+NCS)	
	한국서부발전	합	불(행정학+행정법+헌법+한국사/ NCS:2차)	
	전남대학교병원	합	합(행정학+행정법+영어)	합
	한국도로공사	합	불(행정학+행정법+헌법+NCS)	
	한국전력공사	합	불(NCS)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합	불(행정학or행정법 + NCS)	
	한국철도시설공단	합	불(행정학+행정법+헌법+NCS)	

* 동일 전공 과목이라 하더라도 기업마다 시험 유형이 제각각입니다. 목표 기업 3~4개를 정하시고 우선순위를 두신 후 여러 번 도전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필기/면접 시험 후기는 네이버 공준모 사이트에 많은 응시생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시험장 분위기를 체험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입니다. 목표 기업이 아니더라도 서류 전형이 '적/부'인 경우에는 모든 시험에 응시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 공공기관 취업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멘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용 시즌이 되면 (보통 상반기 3~4월/ 하반기 9~10월) 매 주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면 반드시 복기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두 번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저는 NCS가 유난히 약해서 전공시험에서 만점을 맞아 만회해야한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과 함께 스터디를 했고 시너지 효과를 얻었습니다. 본인의 취약점을 찾으시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신다면 어느 날 면접 준비를 하게 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 면접 준비할 때 도움이 되었던 영상들: 유튜브 강민혁/ 면접왕 이형/ 인싸담당자

-마지막으로

취업을 위해 불필요한 경험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1~2년 늦춰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학 시절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실 때에도 나와 가장 잘 맞는 기업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원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학우 여러분의 길을 응원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스쿨 합격수기: 도전과 성장

영어영문학 서○○(2021.졸업예정)

1. 들어가며

합격수기 작성 요청을 받고나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고시 같은 큰 시험이나 치열한 취업시장의 문턱을 넘은 다른 분들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은 하나의 출발일 뿐 합격수기를 작성할 정도로 큰 성과를 이룬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다른 후배 분들께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LEET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법률저널 및 기타 사이트에 저보다 우수한 고득점자의 상세한 합격수기가 이미 다수 존재하므로 저는 그중 현실적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LEET

(1) 스타일

로스쿨 합격의 관건은 결국 LEET 점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점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아, 다른 정량·정성 점수가 낮더라도 LEET 점수가 높다면 이를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다만 ‘답이 없는 시험’이라고 불리는 만큼,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닌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므로 수험생 마다 준비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어떤 공부스타일에 적합한지 캐치하여 효율적으로 공부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기시험이 아닌 적성시험에서는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시험장에서 낯선 문제를 접했을 때, 풀이하는 사람은 본인이지 강사가 아니며 강사의 사고를 수동적으로 주입받다보면 어느 지점에선가 한계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의 모든 커리큘럼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만 취사·수강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 역시 김우진T 기초강의를 제외하고는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2) 준비

저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남들보다 다소 늦은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LEET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졸업을 하지 못했기에 학업을 병행하며 준비하는데 부담이 있었으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공부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추리논증 김우진T 기초강의를 통해 논리학의 기초를 다졌는데, 가격도 저렴한데다 기초개념과 추리논증의 기본적인 문제 유형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어 향후 추리논증을 푸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5월말까지는 계속해서 기출을 분석하며 기출문제 구성과 논리 체계를 익히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법전

협 해설집을 통해 논리 전개과정에 오류는 없었는지 고민해보고, 그래도 모르겠다면 스터디를 활용해 궁금한 점을 해소하며 사고회로를 교정해 나갔습니다. 6월부터 본고사 전까지는 주마다 메가로스쿨과 법률저널에서 시행하는 전국모의고사에 응시하고, 언어이해는 이원준T, 추리논증은 조승우T 하프 모의고사를 병행하며 실전 감각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원준T 문제는 깔끔하고 소재도 기출과 연계가 잘 되어 있고, 조승우T는 난이도 측면에서 실전과 비슷하다고 느껴져 좋았습니다. 추가로 배경지식이 있다면 문제 풀이 시에 큰 도움이 되므로 빈출되는 소재에 대해서는 필히 배경지식을 정리해나가기를 권장드립니다.

(3) 실전

문제를 계속해서 풀다보면 적응 하게 되어 처음 접했을 때보다 속도가 분명 붙기는 하지만, 몇 개월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본질적인 독해 실력을 높이기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평소 스스로 정한 기준 시간 내에 정해진 문제 수를 주파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버릴 문제는 버리되 나머지 문제들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예컨대 과학기술 분야 중 ‘컴퓨터’ 소재는 제가 가장 취약한 소재였는데, 파본 검사 시간에 당해 지문이 등장하면 견적을 낸 후 아니다 싶으면 시간이 남더라도 검토를 진행해 다른 문제의 정답률을 높였습니다. 난해한 과학 지문 하나 풀어서 세 문제 다 틀리고 다른 문제에서도 공백이 생기는 것 보다, 짚어서 세 문제 중 한 문제 맞고 다른 문제 하나 더 맞추는 것이 전략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실전 때 안정감 있게 문제를 풀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 TOEIC

토익의 경우에는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대체로 점수반영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900점 이상만 확보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올해 입시를 준비하기 전이라면, 입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토익점수는 리트 준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확보해놓기를 권드립니다.

4. 대외활동

간혹 로스쿨 입시를 위해 대외활동이나 봉사활동을 과도하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신이 자기소개서에 원하는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정도’로만 준비한다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량이 미달이라면 대외활동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고, 활동 사항이 많다면 실제 자기소개서에서 이를 덜어내는 게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량을 극복할 정도의 정성이라면 결국 의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각 종 전문 라이선스 밖에 없을 텐데, 이 역시 로스쿨 입학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주객전도입니다. 따라서 LEET나 학점관리를 충실히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5. 스트레스 관리

입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로스쿨 입시와 관련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입을 모아 ‘멘탈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서 취업준비도 아닌 대학원 입학 준비하는데다가,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 변동 폭이 일정하지가 않고, LEET 시험을 치른 이후에도 12월까지 서류전형과 면접이 남아있어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로스쿨 입시는 그저 시작을 위한 관문에 지나지 않지만, 다른 시험에 비해 유독 회의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히려 너무 간절할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이 로스쿨 입시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험 공부에만 매진함으로써 불안을 해소하기 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기나긴 입시를 끝까지 마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식을 담아내고 풀어내는 시험이 아니므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수험에 임하는 태도를 가지고, 같이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터디를 꾸려 함께 공부해 나가며 입시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아가 입시 과정에서부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미리 익혀둔다면 향후 로스쿨에 입학하고 나서도 장기간 공부해야 하는 환경에서도 유용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제가 입시에 기울인 노력 자체만 두고 보면 새롭거나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을 만들지 않았던 점이 한편으로는 이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 마치며

시험 준비과정부터 서류전형과 면접까지 쉴 새 없이 달려오고 나서 돌이켜보니 작년 한해는 도전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단 로스쿨 입시 뿐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하나씩 실천해나가는 선배님들, 동기들, 후배님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로스쿨에 도전하는 모든 분께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며, 저 또한 부끄럽지 않게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의 글은 정답이 아니고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한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문대 취업지원실 선생님을 통해 연락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7급수습직선발제도 합격수기 노력이 모여 꿈을 향한 기회로

사학과 박○○ (2021.졸업예정)

기본스펙 및 대학생활	평균 평점	4.11
	외국어 성적	TOEIC 820
	인턴 또는 현장실습	2018 광주국제교류센터 현장실습 15주
	봉사활동	2016 무등육아원 교육봉사
	자격증	2017 한국사 검정 능력시험 1급
	직무관련 아르바이트	광주비엔날레 아카이브 자료구축 사업 보조
	기타	2017 광주 5.18 기념재단 자원활동가

취업은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해내야 할 가장 큰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 같습니다. 저의 취업수기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인문대 학우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례이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래 저는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 사학을 전공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육자의 길을 가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관련된 다양한 봉사, 자원 활동가 등의 대외활동을 하며 진로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학창시절 제가 그려왔던 역사교육자의 모습과 실제모습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제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3학년 재학당시 새로운 진로목표와 취업을 위해 ‘생애와 직업탐색’이라는 취업관련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수업에서 여러 분야로 취업한 인문대 선배님들과 다양한 기업관련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적성과 성향에 따라 문화 관련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의 직원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진로를 바꾼 탓에 다른 사람들보다 준비가 뒤쳐져 있다는 생각으로 방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교내에서 제공하는 취업 관련 정보와 현장실습 등을 위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4학년 1학기에는 문화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목표에 대한 준비를 위해 교내 현장실습 15주프로그램으로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현장실습인턴을 하였습니다. 문화행사들을 접하며 흥미를 느꼈고, 그것들이 사회에 미치는 좋은 영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문화 행정 분야에서 실무자로서 공익을 위해 일조하며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장실습을 마친 후, 교내 포털에서 관련정보를 찾아보던 중 ‘지역인재 7급 선발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희망대로 저의 전공을 살려 일하는 국가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또한 학점, 어학, 한국사 등의 제시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기

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1년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지역인재 7급 선발을 목표로 필기시험, 면접 등을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제도는 1차 필기시험으로 적성시험인 PSAT, 2차 서류 확인, 3차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학과 성적 10%이내, 한국사 자격증, 토익 700점 이상의 요건을 만족한 학생들이 교내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응시 기회를 얻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기본 요건을 충족했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1차 필기시험인 PSAT 일 것입니다. 적성시험 자체가 낯설기도 하고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기도 해서 많은 학생들이 필기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저 역시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기회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자’였고, 실제로 교내에서 해주는 지원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덕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5급 공채 PSAT과 같은 문제로 같은 날 시행된다는 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같은 공부를 훨씬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부한다면 실력이 더 효과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교내 행정고시반에 신청하여 입실고사를 치른 후 입실하였습니다. 실제로 PSAT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가장 좋았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실력이 더 좋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채울 수 있는 점이 유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내 포털을 수시로 확인하며 지역인재 7급 전형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잘 활용하였습니다. PSAT 인터넷 강의나 PSAT 모의고사와 같은 지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성실하게 참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공부를 하면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혼자서 공부하던 때보다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을 보며 의지를 다시 심을 수도 있었고 좋은 자극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비교적 시간의 여유가 있던 시기에는 융합인재교육원에서 NCS 특강들을 신청해 듣기도 하였습니다. NCS와 PSAT은 문제의 결에서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내에 있던 지원을 잘 활용하는 부분 외에도 저에게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PSAT스터디’를 결성하여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공무원 공채시험과 다르게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필기시험은 적성시험이라는 점에서 스터디를 잘 활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주며 문제를 푸는 방법이나 사고가 발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방법을 보면서 배우고 그것을 또 자신만의 방법으로 체화하는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스터디의 경우는 매주 토요일, 다 같이 모여 실제 필기시험과 같은 시간표로 모의고사를 풀고 오후부터는 다함께 시험 문제를 채점 후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터디를 꾸준하고 성실하게 활용한 덕에 시험 시간표에도 익숙하게 되었고, 실력도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슬럼프가 왔을 때도 함께 공부하며 서로 응원하는 친구들을 보며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교내 추천을 받아 필기시험에 통과한 이후에는 면접에 대한 준비를 위해 세 달여간 박차를 가했습니다. 보통 지역인재 7급 선발제도를 위한 면접은 서울에 있는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저 역시 서울에 거주하면서 면접학원을 다녔습니다. 학원에서 수업하는 면접 관련 질문과 답변의 품을 익히며 면접을 대비하였고, 면접스터디를 통해서 저의 면접 실력을 반복하여 점검하였습니다. 면접은 경험, 정책진행상황, 보고서의 3가지 부분에 대한 PT를 작성하고 본인이 작성한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면서 진행됩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있는 부분과 그동안 해왔던 몇 교내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거나 활동이 다양하지 않아도 두 달 반의 기간 동안 준비하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면접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2020년 5월에 응시했던 1차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8월에 시행된 면접을 거쳐 9월 2일 최종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지역인재 7급을 목표로 정하기 까지도 많은 방황을 하였기 때문에 시작이 늦었다는 생각에 많이 초조하였고 이 시험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너무 벅차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목표를 정한 후에도 오랫동안 정체기에 머물러 있던 저의 실력 때문에 큰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종류를 막론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일찍 준비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목표가 본인에게는 너무 높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또 본인보다 더 잘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믿어 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나의 가치를 알아봐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우 분들이 큰 잠재력을 가진 본인에 대한 한계를 절대 미리 결정짓지 않고 자신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부분은 ‘기회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성취’로 바꿀 수 있는 지는 성실하게 차근차근 쌓아온 노력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학업에 성실하지 않았다면, 혹은 제 진로에 대한 다양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또는 제 진로에 큰 관심이 없었다면 절대 이 기회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씩 쌓다보면 어느새 좋은 기회가 본인을 찾아올 것입니다.

인문대 학생여러분들의 취업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인턴수기

자기객관화와 동기부여의 중요성

국어국문학과 류○○ (2021.졸업예정)

기본스펙 및 대학생활	평균 평점	4.06
	외국어 성적	TOEIC 705
	인턴 또는 현장실습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체험형 청년 인턴
	봉사활동	KB학습멘토링(KB국민은행, 아이들과미래재단)
	자격증	자산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한 국사자격증 1급,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 한국실용글쓰기 준2급
	기타	광주광역시주관 ‘광주음식공모전 스토리 부문 대상’,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2019 도시재생 아 이디어 공모전 장려상’

2017년 12월 2일 나는 21개월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하였다. 그리고 나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 3월 복학을 하게 된다. 2015년 신입생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해 햇수로 3년이 지났던 나는 복학한 대학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 공부라고는 군 생활 중 특별외박을 받기 위해 했던 ‘한국실용글쓰기 자격증’ 공부뿐이었기 때문에 공부라는 것이 손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렇게 전역 후 첫 학기는 신입생 때 받았던 학점과 비슷했다. 그러나 한 학기만에 적응을 했던 것인지 철이든 것인지 2학기 때 성적이 급상승하였다. 종전에 3.75로 간신히 성적우수 학점을 받았던 나는 4.25라는 학점을 받았다.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동력 중 하나가 동기부여이다. 이때부터 나는 공부에 재미가 들였고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성적을 받기’라는 동기부여를 갖게 되었다.

행정학과를 복수 전공하면서 정신없는 2학년을 보냈던 나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지닌 채로 3학년이 되었다. 그러면서 3학년 1학기에 4.5의 학점을 받으며 학과 수석을 차지하였고 전액장학금도 받게 되었다. 이때 나는 친구를 통해서 지역인재 7급 공무원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학과 졸업 학점 10% 안에 드는 학생에 한하여 7급 공무원 시험을 보게 해주는 제도였다. 행정학을 복수전공하고 있었던 나는 이것이 내 현재를 투자하여도 될 만한 미래라고 생각하여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이 되는 자격증들을 취득하기 시작했다. 2019년 여름부터 한국사 자격증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학과에서 10% 안에 들어야 했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우선순위에 두고 대학생활을 했다. 그러나 아무리 2년간 좋은 성적을 받았어도 1학년 때 학점이 발목을 잡았다. 좋은 성적을 받았어도 총 학점은 더디게 상승하였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3학년을 끝마치고 보니 내 성적은 학과 10% 안에 들지 못하고 있었다. ‘이 불확실한 미래에 내 현재를 투자해도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불어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 아

버지가 떠올랐다. 나는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빨리 다른 방향으로 변경해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금융권에 들어가자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쉽게 포기하고 바꾼다는 것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지만 자신이 처한 환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 객관화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많은 후배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행정학을 복수전공하면서 행정학은 물론 법과 경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제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금융권에 대한 목표를 새롭게 갖게 되었다. 목표가 새롭게 생겼다면 새로운 현재에 충실해야한다. 그렇게 나는 바로 금융 관련 자격증들을 공부했다. 2020년 새로운 해가 뜨자마자 나는 금융연수원 주관 ‘은행 FP (자산관리사)’ 자격증과 한국투자협회 주관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두 자격증 모두 2~3개월간의 공부를 통해 취득하게 되었다.

자격증을 취득하다보면 그 과정에 재미를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수집하고 싶은 욕구까지 생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시작하기 전에는 막연히 ‘내가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앞서지만 하고 나면 ‘별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나만의 재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은행 FP’ 하나만 따려던 나는 ‘투자자산운용사’까지 따게 되었고 그것이 앞으로 있을 미래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자격증을 따게 되면 좋은 점이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했고 자격증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었다는 것을 통해 무엇이든지 도전해볼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정신적인 고양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통해 여러 기업과 기관에 가산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나는 이 자격증들을 통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업과 기관들이 어디가 있을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격증을 공부하던 당시에는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는 것 자체가 재밌었기 때문에 무작정 자격증을 땀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땀던 ‘은행 FP’와 ‘투자자산운용사’를 바탕으로 서류전형에 가산점을 받아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에 청년 인턴으로 입사하게 된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금융 전문 자격증이 어떤 기관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을지 찾아보다가 우리지역,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사학연금공단”을 알게 되었다. 전남대학교는 우리 호남지역 거점국립대학교로서 나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에 ‘이전지역인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이전 지역 인재는 서류전형 상 5%의 가산점과 30%의 의무채용이 있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학생이라면 본사 이전 공공기관들을 잘 알아보고 지원해보면 좋을 것이다.

공기업은 채용과정에서 공무원과 비슷하게 한국사 부문과 한국어 부문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렇게 나는 ‘한국사 1급 자격증’, ‘한국실용글쓰기 준2급’ 자격증으로 위 두 부문에서 가산점을 받았다. 또한 전문자격증 부문이 있는데, 나는 ‘컴퓨터활용능력 1급’과 ‘은행 FP’,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으로 가산점을 받았다.

군 생활과 대학생활 중 틈틈이 따왔던 자격증들이 도움이 되어 서류전형에서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모두 받게 된다. 그리고 군 전역 후 6개월간 활동했던 “KB학습멘토링” 대외활동 경험과 광주광역시 주관 “광주음식공모전 스토리부문 대상”,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주관 “도지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 등 공모전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앞서 대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학교 공부와 자격증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대외활동과 공모전이라고 생각한다. 획일화된 학교 공부와 학점은 모두가 갖고 있는 색깔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이 가질 수 있는 색깔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나는 능력이 닿는 대로 대외활동을 하였고 공모전을 참여하였다. 결과가 따라오면 좋겠지만 따라오지 않더라도 남들에게 본인만의 특색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나만의 스토리를 좋게 봐주셨는지 나는 사학연금공단의 ‘체험형 청년인턴’ 서류전형을 통과하였다.

면접의 경우 인턴십과 신입사원 채용이 다르다고 한다. 체험형 청년 인턴으로 지원했던 나는 한 차례의 면접만 실시하였다. 신입사원 채용 시 면접은 직무 중심의 질문이 주가 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인턴십에 지원했던 내 경우에는 직무보다 대학생활 중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과 인성적 측면에서 질문을 했었다. 네 명의 면접관이 각각 하나씩 총 네 개의 질문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질문은 “대학생활 중 어떠한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에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고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어떻게 개선하였는가?”였다. 이 질문 하나만 봐도 인턴십 면접에서 어떤 면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알 수 있다. 면접관들은 조직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자가 인간관계에 있어 어떤 성향인지를 판단하고 조직에 소속되어 어떤 역할을 도맡아 할 수 있는지를 보며, 부족한 점을 통해 개선·발전의지를 본다. 나는 예상 질문지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연습을 했으며, 그 과정을 통해 네 개의 질문들에 잘 답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7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사학연금공단의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나는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사학연금공단 본부에서 나를 포함하여 11명의 동기들과 인턴생활을 하게 되었다. 각자 전공과 면접 결과에 따라 부서를 배치 받았는데 나는 홍보실에 배치를 받게 되었다. 대다수의 동기들이 경제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나는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있었기에 홍보실에 배치되었을 것이다. 면접 과정에서 대학생활 중 스토리텔링 공모전 수상이나 대학생 홍보대사 활동 등을 했던 경험을 고려하였던 것 같다. 그렇게 2020년 10월 1일자로 홍보실에 배치된 나는 12월 31일까지 근무를 명받았다.

홍보실의 업무는 이름 그대로 홍보에 관련된 업무들이 주가 된다. SNS 홍보채널을 관리하는 일, 공단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일, 사내 잡지를 제작하는 일,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일,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일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나는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일을 주 업무로 맡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이나 기관이 어떤 식으로 기자들을 상대하고 기관을 홍보하는지 알게 되었다. 또한 내가 업무 책임자로 진행한 사업이 하나 있다. 공단 건물 외벽에 신

년 글귀가 담긴 현수막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일이었다.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직접 기안문을 작성해보며, 부서장에게 결재를 받고 본부장에게 승인을 받는 등 수직관계인 회사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직접 몸으로 부딪혀 배웠다. 이뿐만 아니라 사내 직원들과 사학연금 가입자들에게 배부되는 잡지를 제작하는 일에 참여하여 외주업체와의 화상회의에 참여해 보는 등 다양한 업무들을 경험해 보았다.

3개월의 짧은 인턴 기간 동안 실장님께서 비록 인턴이지만 믿고 여러 업무들을 맡겨주셔서 정말 귀중한 경험들을 많이 하였다. 특히 사학연금공단이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모습과 사기업의 모습, 두 가지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측면 모두를 경험할 수 있어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공기업 인턴을 해보는 것이 경험적 측면에서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

사실 사학연금공단이라는 곳에서 ‘내가 보도자료를 작성 했고, 사내 잡지 제작에도 참여했다.’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존재하고 업무 또한 천차만별이며, 본인이 소속될 수도 있는 부서 또한 셀 수 없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학연금공단의 홍보실에서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대학생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공기업 인턴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수기를 읽고 계시는 분들 모두 각자 나름대로 대학생활에 충실히 임하시고 열심히 생활해 오신 분들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기를 쓰고 있지만 그렇게 대단한 성취를 이룬 것도 아니다. 단지 인턴 근무를 3개월간 했을 뿐이고 근무가 끝난 지금에 다시 대학교 4학년생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기를 읽고 ‘아 이렇게 대학생활을 한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점은 내가 배울만 하구나.’같이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지나온 대학생활이 모두에게 지향점이 될 수도 없고 결코 정답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허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갈피도 전혀 잡지 못하고 아무런 동기부여나 목적의식 없이 생활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수기를 읽고 자신을 객관화해보셨으면 좋겠다.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지냈던 1학년 때의 내가 3년 뒤 내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후회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부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인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수많은 길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의 길은 제가 발자국을 남겨 놓았으니 그 길을 따라서 걸어주신다면 좋겠다.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문대 학우들에게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수기를 끝마친다.

한국전력공사 사무직 취업수기

겁먹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세요

중어중문학과 오○○ (2020.08.졸업)

기본스펙 및 대학생활	평균 평점	3.73
	외국어 성적	토익 885, 오픽 IH
	인턴 또는 현장실습	KT&G 광주전남본부 8주 현장실습
	봉사활동	SK Sunny, 현대자동차 HappyMove, 삼성 드림클래스
	자격증	한국사1급, KBS한국어3+
	직무관련 아르바이트	운암동 영어학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1년
	기타	2017학년도 중어중문학과 학생회 한국전력공사 전기사랑기자단

겁먹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세요

제 최종 학점은 3, 73입니다. 2.00에서 여기까지 올리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꿀팁이라고 하면 바로 경영대학교 외국어 수업이었습니다. 사실 인문대학교 학생이라면 복수전공, 부전공을 많이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는 경영학을 선택했습니다. 부전공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학을 30학점 이상 수강했고 이 안에서 절반 이상은 외국어 수업(절대평가)을 수강하면서 학점을 많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NCS 뿐만 아니라 전공 필기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취업시즌이 닥쳐서 따로 전공을 준비하는 것보다 경영대(경영, 경제) 수업을 들으면서 미리미리 전공 필기를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턴활동을 대부분 많이 고려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턴활동은 장점 그리고 단점도 명확합니다. 인턴을 하면 이력서에 작성할 뿐만 아니라 면접에 가서도 할 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턴을 하는 시즌에는 정작 중요한 필기 공부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기업 체험형 인턴에게 직접 실무를 맡길 수 없으므로 가만히 앉아서 8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취업 시즌에 인턴을 하기보다는 스터디를 통해 필기 공부에 더욱 열중했고 실제로 주변 지인들에게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취업 준비는 4학년 2학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자격증은 그 전 방학 기간이나 시험 기간 외에 시간을 활용해 취득했습니다. 닥쳐서 입사지원, 자격증 준비를 하는 것보다 먼저 자격증을 다 갖춰놓고 입사지원을 준비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두 가지를 다 준비하려고 하면 두 가지다 놓칠 수 있기도 하고 입사지원 시즌이 다가오면 자격증 준비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자격증 취득을 먼저 준비하는 걸 추천합니다.

NCS 스터디는 월, 화, 수 주 3회 진행했고 면접 스터디는 주 1회 일요일 3시간 정도 했습니다. 저는 기계공학과 친구를 따라 스터디를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이공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이 이공계 친구들과 문과계열 친구들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공계 친구들은 저희보다 수리, 차트 파악이 빨랐고 저희는 이공계 친구들보다 의사소통, 문제해결 능력 부분이 수월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꼭! 이공계 친구들도 함께하는 스터디에 참여하세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터디 참여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다르므로 제가 고집하던 방식보다 더욱더 효율적이고 빠른 방식을 찾을 수 있어서 스터디 참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스터디의 목적은 다들 취업에 성공해 스터디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분위기의 스터디를 찾아 최대한 빠르게 모두가 각자 살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부에 집중하세요. 너무 친해져도 골치 아프고 딱 적당한 사이를 유지하시길 추천합니다.

입사지원 후기

필기후기

한국전력공사 NCS는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5월 중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NCS 모의고사를 풀 때 항상 ‘끝까지 푼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험에서도 ‘끝까지 풀자’라는 마음이 있었고 실제로 6개의 건너뛴 문제를 포함해서 끝까지 풀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느꼈던 생각은 ‘작년보다 쉽다’였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필기에 합격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지만, 운이 좋게 합격했습니다. 공기업 필기에 합격한 곳이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했고 그만큼 저는 필기전형에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합격을 하고 나서 어떠한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는지 곰곰이 고민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NCS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오답 풀이를 하고 오후 3시에 새로운 모의고사를 팀원들과 풀었는데, 이때 시험 시간도 오후 3시였기에 평소 문제를 풀었던 생체리듬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한전은 오답 감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에 절대 찍지 않았습니다. 풀이를 통해 2가지 정답이 남았을 때는 최대한 가깝다고 생각되는 정답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비될 거 같고 전혀 갈피를 못 잡겠다는 문제는 부여잡기보다 과감히 스킵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무조건 끝까지 간다라는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미련을 가지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사실 현재 공기업 중에 전공 필기를 보지 않는 회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NCS실력 뿐만 아니라 **전공 필기(경영학, 경제학)**도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느낀 바에 따르면 NCS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면 더 실력이 향상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상황에서는 전공필기에 더욱더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NCS 3 전공 필기 7 비중으로 필기를 준비했습니다. 경영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회계를 꼭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점수를 얻어갈 수 있는 영역이기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회계학을 공부하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면접후기

저는 2020년 상반기에 사기업 2곳, 공기업(한전) 1곳 면접을 경험했습니다. 공통된 후기는 자신 있게 씩씩한 목소리로 답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거짓말은 면접이라는 긴장되는 공간 속에서 금방 들통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꾸며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담백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설픈 프로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 완벽한 프로의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이미 면접장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저희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프로들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항상 씩씩한 아마추어**의 모습을 어필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면접 합격(3곳 다는 아니지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1차 면접은 전공 면접입니다. 저는 입사지원서 작성 당시 ‘상경’으로 지원했습니다. 물론 학과는 인문학교 학생이지만 저는 ‘상경’ 선택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인문사회는 대비가 어렵습니다. 워낙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되므로 사전대비가 힘들고 수집할 수 있는 기출문제의 수도 상경이 더 많아서 상경을 강력 추천합니다. 전공 질문은 본인이 작성한 교육사항에서 면접 위원관님들이 한 가지를 선택해 질문합니다. 여러 가지 과목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과목(주제)을 갖고 4분이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관리’ 위주로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4분 다 제 말씀을 잘 경청해주셨고 그 덕에 씩씩하게 모든 질문에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들어가서 조금 걱정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제 온전한 답변을 진행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지 않는 첫 질문이었던 전공질문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은 아찔했지만 그다음 질문부터 막힘없이 대답했기에 마지막에는 씩씩하다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너무 인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어필**하는 것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2차 면접 또한 동일한 서울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전은 면접 대기시간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개 엄청 깁니다. 저 또한 12시에 도착 예정이었지만 2시가 넘어서 면접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에 꼭 소먹거리를 가방에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한 긴장이 완화되는 약을 도착한 뒤에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12시 직전에 먹었는데 면접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너무 긴장이 완화되서 하품이 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2차 면접은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로는 ‘인성면접이다’ ‘거의 다 끝났다. 너무 긴장 하지 미라’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면접장 분위기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물론 면접관 BY 면접관이겠지만 1차 면접 때는 면접관 사이에 키키타카가 존재했지만 2차 면접은 한 분이 연달아 계속 질문하시고 그다음 분이 연달아 질문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총 4분 중에 양쪽 2분이 외부위원이시고 가운데 2분이 현직 자 선배님으로 추정했습니다. 예상외로 꼬리 질문, 압박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면접관님과 아이컨택을 했고 항상 씩씩하게 답변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면접 마지막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4분 다 질문을 마치시고 한 분이 추가 질문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그랬듯 저는 씩씩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왔던 답변은 ‘지원자분 방금 정반대로 답변하셨네요.’ 떨어짐을 직감했습니다. 면접 결과를 기다리던 2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말이 맴돌았습니다. 너무 너무 걱정됐지만 결과적으로 합격했습니다. 면접은 회사가 원하는 답변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가? 가 아니라 **제 자신이 이러한 생각과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점이 해당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어필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그들이 바라는 답변으로 대답하고자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면접을 잘 봤는데 불합격한다면 그냥 그 회사와 본인이 맞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할 말

저는 절대 특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학점도, 스펙도 절대 자랑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강점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신감**입니다. 많은 분이 ‘사기업은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공기업, 사기업 둘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회사고 사람을 뽑는 회사입니다.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더더욱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취업에서 확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업 공기업 합쳐서 모두 100군데 넘게 지원을 했고 수십 군데 필기를 보고 세 군데 면접을 보고 최종 한국전력공사에 합격했습니다.

불합격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역량이 부족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본인과 해당 회사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불합격에 여태껏 유지해오던 페이스를 잃는 게 더 큰 손실입니다. 그렇기에 수백 번 떨어져도 단 한 번의 합격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담하게 걸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전남대학교는 나주 혁신도시, 광주전남 지역 사원을 채용하는 회사를 지원하는 **가장 유리한 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 번 자신감을 가지세요. 지역 사원 채용은 정말 유리한 제도입니다. 저 또한 ‘우리 학교 학생들만 이기면 되잖아’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딱 한 번만 합격하시면 됩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인턴수기

실무를 넘어 '회사 생활'의 A부터 Z까지

국어국문학과 김○○ (2021.졸업예정)

기본스펙 및 대학생활	평균 평점	3.88
	봉사활동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 서포터즈 봉사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전략기획실무 2급
	기타	콘텐츠 제작 동아리 및 학과 동아리 활동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대 동계인턴에 선발되어 현재 광주여성가족재단 키움지원단 소속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국어국문학과 김윤주입니다.

작년 한 해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께 참 힘든 한 해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일상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경제가 침체 되어 많은 회사가 구조조정을 피하지 못했고, 채용 공고는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취업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시험 역시 취소되기 일쑤였고, 취업의 문은 채감상 그 어느 때보다 좁았습니다.

졸업을 코앞에 두고 취업 준비를 시작해 나가던 저는 이러한 상황에 큰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아 안 그래도 초조한데, 코로나라는 큰 장애물마저 생긴 셈이었습니다. 특히나 취업을 위해 한 번쯤은 경험해야 한다지만, 가뜰이나 자리가 귀해 '금턴'이라고 불리는 인턴 공고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있는 공고는 모두 '인턴인데 경쟁률이 저만큼? 나는 떨어지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문대학의 동계인턴 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문대학의 학생을 겨울방학 기간 동안 광주지역 6개 기관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으로, 극심한 경쟁률에 위촉되던 제게는 큰 행운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인턴은 수많은 대학의 학생들 사이에서 선발되어야 하지만, 인문대의 동계인턴은 인문대학의 학생들 사이에서 선발되는 것이었으니 아무래도 경쟁률이 덜 하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문대학 동계인턴 프로그램은 학생의 자기소개서 내용과 글쓰기 능력을 보고 선발합니다. 저는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 같은 스펙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으나 대학 4년간 나름대로 쌓아온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열심히 녹여내었고, 기쁘게도 1지망으로 지원하였던 기관에 선발되었습니다.

대학 생활 동안 저는 교내외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경험을 주로 쌓았습니다. 기관에서도 그 경험을 고려하셔서, 기관과 연관 있는 시의 유용한 지원 정책이나 정보를 콘텐츠로 제작하는 업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인턴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분야에 얼마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런 정보를 더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지 고민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공공기관에서의 대외활동으로 나중에 공익을 위해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던

터라, 제가 만든 콘텐츠를 시민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뿌듯함을 느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턴 생활을 하며 이후 가장 큰 도움이 되리라 느꼈던 것은 실무보다 그 밖의 것들입니다. 기업들이 인턴 경험을 가진 지원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실무도 실무이지만, ‘회사생활’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읽을 당시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막상 인턴을 경험해 보니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사분들이 모두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인턴들만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상사분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우왕좌왕하다 받으러 가는 사이에 결국 전화벨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때 우연히 지나가시던 직원분이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전화를 당겨 받는지, 대신 받았을 때는 어떻게 자신을 소개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평소 나름대로 동아리 활동을 해왔으니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일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해왔으나, ‘회사’라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저는 정말 사소하고 간단한 것 하나하나 배워가야 하는 위치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다른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등 업무상 의사소통하는 방식, 업무 메일을 작성하는 법이나 프로그램에서 문서를 보기 좋게 작성하는 법 등 인턴으로 근무하는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직접, 혹은 어깨너머로라도 하나씩 배워가는 배움의 장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문대학을 통해 할 수 있었던 이번 경험은 인턴이 아닌 정식 사원으로 회사에 취직하였을 때 제게 분명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취업하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때입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같이 구조조정이나 고용 불안정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소식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혹은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초조함과 위축감을 가지게 합니다. 저 역시 동계인턴에 선발되기 전에는 내가 과연 취업할 수는 있을는지 걱정이 되어 잠을 설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학교 내에 취업에 도움을 주려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며, 얼마든지 그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준비가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와 같이 흔히 ‘스펙’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보고자 하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한, 인문대학의 인턴 프로그램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 역시 이러한 준비가 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동계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 생활’의 A부터 Z까지 천천히 배워가며 소중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것처럼, 다른 학우 여러분께서도 인문대학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시는 미래를 잘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인턴수기

기록에서 기억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느꼈던 인턴

사학과 김○○ (2021.졸업예정)

기본스펙 및 대학생활	평균 평점	3.74
	외국어 성적	Opic IM2
	인턴 또는 현장실습	현장실습 18주
	봉사활동	경로당 봉사활동

[기관소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관리하는 복합적인 기관이다. 지하1층, 지상7층 건물이며, 주로 4층과 5층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기록관 5층에는 4개의 수장고가 있다. 1수장고는 지류 중심의 기록물이 보존되어 있고, 2수장고는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섬유류 등의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다. 3수장고는 각종 문화예술품과 박물류를 보존하고 있다. 3수장고 내에 위치한 영점수장고에는 사진, 필름, DVD 등 영상자료를 보존하고 있다. 2020년 현재 기준으로 보존 중인 문서, 박물, 시청각 기록물은 약 3만 4천점 정도이다. 기록관에서는 이러한 기록물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전산화하고, 공개 가능한 기록물을 찾아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턴업무]

1. 기록물 DB 구축

인턴 업무 또한 기록물 전산화를 위한 DB구축 작업과 이 많았기 때문에 1수장고와 영점수장고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수장고 내부는 기록물 보존을 위한 곳이니 만큼 출입을 제한하고 내부의 온도와 습도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수장고 문을 열면 강한 바람과 불고, 기록물 보존을 위한 화학약품 냄새가 났다. 약품 냄새는 독한 생강 냄새처럼 느껴졌는데 이로 인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했다. 또 기록물은 뒤편을 막고, 지문이 묻지 않도록 장갑을 끼고 기록물들을 다뤄야 했다.

제1수장고의 문서자료는 관리번호를 붙여 구별하며 노란색 바인더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바인더 속 내용물이 뒤섞여 있었고, 자료를 옮기며 새로 바뀐 위치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일부 등록되지 않은 기록물도 있었고, 등록된 기록물 중 일부는 매수 정보가 누락되어 있었다. 때문에 각 문서자료를 알맞은 바인더에 넣고, 위치 정보와 매수 정보를 다시 파악해야만 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바인더를 열어 책을 꺼내 관리번호를 확인하고 매수를 세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조사해야 할 기록물의 양이 방대했고, 주어진 기간은 짧았기에 더욱 막막하게 느껴졌었다. 그러나 담당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기록관 아카이브 정보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었고, 담당선생님과 마감 기간을 조율하여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었다.

영점수장고 내의 영상자료를 확인하는 일도 했다. 5.18과 광주에 대한 영상들로 국회 청문회 영상, 시민 증언자료 등이 있었다. 이러한 영상자료들이 파손여부와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일을 했다. 매일 영상을 시청하며 기계적으로 CD를 넣고 빼다가도 눈 앞에서 재현되는 잔혹한 학살과 처절한 항쟁에 무더질 수만은 없었다. 영상 속 인물들과 함께 분노하고, 슬퍼하며 5.18과 광주정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2. 메타데이터 분석 기초자료 입력

기록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5.18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광주사태’등 특정 단어가 얼마나 자주 쓰였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입력했다. 직접 5.18을 겪은 석산고 학생들이 1년 후에 쓴 회고문을 반 별로 분류하고, 각 자료의 기초가 되는 글의 제목, 작성자, 매수 등을 파악해 정리했다. 또한 관리가 용이하도록 한 장, 한 장 직접 쪽 번호를 쓰고, 찢긴 부분은 특수한 테이프를 붙여 수리를 했다.

마스크를 쓰고, 라텍스 장갑을 끼고 먼지가 날리는 원본 문서를 조심스럽게 다루며 쪽 영화 속 고고학자가 된 기분이 들었다. 비밀스러운 암호가 숨어있는 보물지도는 아니었지만 학생들의 글을 보고 당시 광주 사람들의 생각을 어렵듯이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 중 일부는 혹시 모를 피해를 우려하여 익명으로 글을 작성하거나 글씨를 지워 의도적으로 작성자를 알 수 없도록 했다. 문서를 보며 시간이 지났음에도 5.18에 여전한 두려움과 공포가 느껴졌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5.18을 겪은 이들의 아픔은 변하지 않은 채 남아있을 것이다.

3. 기록물 전산화

쪽 번호를 쓴 문서를 스캔하여 편집하는 작업도 했다. 스캔한 문서의 여백을 잘라내고 수평을 맞추는 일이었다. 편집을 하며 쪽 번호와 파일명이 맞는지, 누락된 페이지는 없는지 확인해야 했다. 스캔 파일은 주로 광주시에서 작성한 공문서 파일로 기록의 주체가 시민이나 기자가 아닌 공공기관이라는 점이 특이했다. 그 중 무기회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자료가 기억에 남는다. 시민들이 직접 무기를 습득한 경위 등을 자세하게 서술하였으며, 무기 반납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다. 시민들이 무장 투쟁을 하기까지의 고민들을 엿볼 수 있었기에 더욱 소중한 자료로 느껴졌다.

[느낀점]

기록관은 기록관만이 아닌 전시관과 도서관이 함께 모여 있는 복합적인 공간이었다. 각 공간의 특수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하는 기록연구사와 기록을 토대로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학예연구사,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직접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기록관의 특수한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취업수기

취업은 어차피 1승

중어중문학과 공○○(2019.08.졸업)

기본스펙 및 대학생활	평균 평점	4.09
	외국어 성적	HSK 6급, OPIc IH, TOEIC 875
	인턴 또는 현장실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텐진무역관
	봉사활동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영어통역자원봉사 105시간 아동복지센터 멘토링 60시간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평가 1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1. 대학생활 스토리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하였지만, 중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운 것은 처음이기에 1학년 신입생 때는 중국어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전과의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중국어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에 전과를 하지 않았고, 대신 복수전공으로 경영학부를 이수하였습니다. 3학년 1학기에 6개월 간 상해사범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갔습니다. 이후 중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알고 싶어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한 학기 휴학을 한 후 상해에 머무르며 어학연수를 자비로 수강하였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온 후, 3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교직과목을 들으며 중국어 교직이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직은 제가 여태 수강해온 인문, 경영 분야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3학년 이후 본 전공, 복수전공과 교직이수를 동시에 수강하는 데는 물론 체력적인 한계와 시간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생실습, 경영학 팀프로젝트 활동 등을 경험하며 지적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 외적으로, 저는 대학에 들어오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학과 소모임 뿐만 아니라 중앙영어회화동아리에도 가입하며 활동하였고, 학과실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근로장학생을 하며 수업이 끝나도 최대한 학교에 머무르며 동기들, 학교 선생님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단과대학마다 한 명 이상의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전공의 선후배, 동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 입사지원경험

인성·적성 검사 후기

- 시험유형 : NCS 100%, 의사소통/수리/자원관리/문제해결/정보능력 5개 영역 총 100문제 75분 (한 영역 당 20문제씩 15분)
- 합격기준 : NCS직무능력검사 점수와 가점 합산의 고득점순
- NCS 후기

5개 영역이 순서대로 15분씩 진행되었습니다. 한 영역 당 15분에 20문제를 풀어야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하였습니다. 난이도는 의사소통, 수리영역은 시간 내에 딱

맞게 풀 수 있었으나 뒤 영역은 거의 2-3문제가 엮인 세트형 문제가 많았고, 지문이나 조건을 단시간에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모두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계산이 복잡하거나 접근법이 한번에 떠오르지 않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였습니다. 그 후 풀 수 있는 문제는 정확히 풀려고 노력하였고, 그렇지 않은 문제는 미련갖지 않고 버렸습니다.

4. 면접후기

(1) 1차 면접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입직원 채용은 1차 역량면접, 2차 인성면접, 총 2번의 집단면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0 한국콘텐츠진흥원 1차 역량면접 기출)

1. 자기소개
2. 각각 관심 있는 콘텐츠 산업과 해외시장동향,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해야 할 일
3. 무리한 일임에도 성실하게 목표를 달성한 경험
4. 시장성공률이 적은 소규모 기업을 지원해야 할지, 시장성공률이 높은 중소기업 기업을 지원해야 할지
5. 인재양성팀 직원이라면, 사업자들에게 어떤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지
6. 탈조직화가 위험한 이유와, 팀워크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7. 마지막 할 말

(면접준비) 저는 필기합격 결과를 보자마자 면접스터디를 구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하였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한국콘텐츠진흥원 준비방에서 면접스터디 구인 공고를 보고 빠르게 참여하였습니다. 이처럼 필기합격 결과를 알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 지역 및 시간대가 맞는 면접스터디를 빠르게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결과발표부터 면접까지 대부분 7일~10일 등으로 준비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kocca)의 1차 면접도 7일의 시간이 있었으며, 저는 바로 면접스터디를 구한 후 실전 연습에 임했습니다.

면접스터디는 매일 3시간 씩 상대 btc카페의 스터디룸에서, 1시간 기업분석 및 콘텐츠 시장 조사 + 2시간 모의면접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모의면접 시간에 항상 노트북으로 저의 말하는 모습을 녹화하였습니다. 면접스터디 외 시간은 저 스스로 kocca 홈페이지나 관련 기사를 보며 기업분석 및 인터뷰를 참고하며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화두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면접스터디 때 녹화하였던 제 모습을 보며, 어떤 언어습관이 있고 어떤 점을 고쳐야할지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았습니다. 면접까지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지식 및 태도 측면의 피드백을 그때그때 흡수하고 바로잡으며, 말하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면접) 1차 역량면접은 5인 1조 50분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 흥릉콘텐츠인재캠퍼스

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오전 10시 분반이었기 때문에 그 전날 면접장소 근처로 숙소와 헤어샵을 예약하였습니다. 면접 대상자가 많거나 면접장소가 교통이 불편한 곳이라면 숙소, 헤어샵 등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것도 필기합격 이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샵의 경우, 네이버로 미리 후기를 체크하고 예약을 하였으며 30-4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면접시작 2시간 전에 예약하여 스타일링을 받고, 면접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면접관님은 4분이었으며, 실무자 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인 1조라 한 사람당 총 10분의 대답 시간이 주어집니다. 전체적인 면접분위기는 꼬리질문은 거의 안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실제 자신이 실무자가 되어 어떤 상황에 맞닥트리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상황질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2) 2차 면접

(2020 한국콘텐츠진흥원 최종 인성면접 기출)

1. 자기소개
2. 살아오면서 실수했던 경험
3. 자소서 기반 개인 질문
4. 좋아하는 콘텐츠분야와 10년 후 어떻게 할 지
5. 갈등과 협업 경험
6. 다들 재직 경험이 있어 보이는데 그 기관과 콘진원의 차이점,
콘진원의 강점과 약점
7.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면접준비) 1차 면접 결과 후 일주일 뒤 2차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유지하였던 면접스터디에 인원을 충원하여 매일 면접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인성면접인 만큼 모의면접 위주로, 인성질문 및 자소서 기반 질문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1차 결과를 확인한 후, 헤어샵을 예약하려고 했으나 집 근처에 마땅한 곳이 없어 유튜브 영상을 보며 셀프 스타일링을 하였습니다.

(면접) 최종면접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나주 본원에서 진행되었으며, 1차와 마찬가지로 5인 1조, 50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면접관 4분은 임원급들이었으며, 최대한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꼬리질문은 거의 없었으며, 질문 하나에 두 가지 이상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 Tip

면접은 대화하는 과정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이처럼 혼자서 준비하면 힘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백도 일자리센터나 면접스터디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꼭 자신의 모습을 피드백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하여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상황질문이 들어온다면 대답이 장황해질 수 있는데, 최대한 묻는 말에 간결하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사 후, 최종면접 당시 면접관이셨던 부원장님에게 여쭙보니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할 때의 태도도 중요하다고 피드백해주셨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패션산업팀 인턴수기

공기업 인턴은 출근해서 공부만 한다고? NO!

독일언어문학과 김○○(2021.졸업예정)

기본스펙 및 대학생활	평균 평점	4.21
	외국어 성적	독일어 Goethe-Zertifikat B1
	인턴 또는 현장실습	- HS애드(LG애드) 기획(AE) 인턴 -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음악패션산업팀 인턴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축제기획 전문인력과정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트트레일러 오픈트레일러 청년기획단 총연출(PD) - 담양문화재단, 해동문화축제 기획운영팀
	봉사활동	- 사단법인 오월음악, 오월창작가요제 서포터즈
	자격증	- SNS 마케팅 관리자 - 실무 엑셀 전문가 2급 - 마케팅 데이터 분석가 3급 - 독일어 Goethe-Zertifikat B1
	수상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우리 지역 우수기업 알리기 UCC경진대회 전국대회 우수상 (2위) - 한국광고총연합회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 (KOSAC) 전국대회 동상 (3위) - 전남대학교 국제협력본부, 2020 전남대 국제교류 UCC공모전 대상 (1위) - 전남대학교 CUB전대방송, 용봉가요제 대중가요 부문 총장상 대상 (1위)
	직무관련 아르바이트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박사와 비밀의 문 (현장 운영 및 시스템관리)
	기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희망이음프로젝트 서포터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희망이음 라이브TV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정책기자단 - 국외 어학연수, Friedrich-Schiller-University Jena (독일)

저는 2020년 인문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하계 국내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두 달 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인턴 경험을 쌓았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가의 문화콘텐츠사업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조사하는 연구를 펼치며, 콘텐츠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2014년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였으며, 본교 선배님들도 해당 기관에서 많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저는 대중문화본부 음악패션산업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악패션산업팀은 음악산업과 패션산업에 관련된 국고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서울 국제 뮤직페어(MU:CON), 뮤즈온(MUSE:ON), 패션코드(Fashion Kode)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사무직에서 수행하는 ‘국고 지원사업 관리 및 담당’이라는 직무는 학생 신분으로서 절대 경험해 볼 수 없는 직무이기도 합니다. 초중고 시절 매번 방송부 활동을 했고, 대학 입학 후에도 각종 대외활동 및 공모전을 통해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관련된 경험들은 많이 쌓아왔지만, 콘텐츠산업의 지원사업 담당자로서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인턴 경험이 관심업계의 새로운 직종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일상을 바라보며 직

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공기업 문화 및 체계에 대해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팀 선배님들과 콘진원에 재직 중이신 전남대학교 선배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추후 취업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팀에서 메인으로 담당했던 업무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음악공연 강행 및 취소 현황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오전 9시까지 출근을 하면, 국내 음악공연 티켓판매 사이트를 모두 모니터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진행현황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였고, 해당 문서는 팀 선배님의 확인과정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되었습니다. 이 외 '해외 패션 행사 사례조사', '언택트 공연 사례 조사'등 팀 내 업무 진행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맡아 팀원분들의 업무 진행을 보조하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팀 유튜브 공식 채널에 영상 업로드', '패션콘텐츠 지원사업 관련 협약체결 행정처리' 등을 보조하였습니다. 팀원들은 음악과 패션 두 가지의 파트로 나뉘어져서 업무를 분담하지만, 저는 음악 파트와 패션 파트를 조금씩 모두 골고루 보조하면서 팀의 전반적인 사업 진행 현황과 일정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저에게 이렇게 많은 업무를 맡겨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원분들 입장에서선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에게 어떤 일을 시켜야 할지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업무시스템 문서함을 뒤지며 스스로 팀 내 진행되는 업무들을 공부하였고, 궁금한 점은 따로 수첩에 기록했다가 팀 선배님들이 바쁘지 않으실 때 질문하였습니다. 팀원분들도 진지하게 인턴십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출장에 동행하는 기회를 주시기도 했고, 하나둘씩 작은 업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사실 저에게 이번 인턴 경험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인턴을 경험했던 광고회사에서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회사 생활을 경험해 본 탓에, 직원분들을 부를 때 성함 뒤에 직급을 붙여 부르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가 아니라 정말 사회생활이었고, 어느 정도까지 편하게 대해도 되는지도 어려웠으며, 나의 넘치는 정과 의욕이 혹여 이분들께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도 항상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가만히 있으면 일을 시켜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매우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저것 낯선 환경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수동적이며 소극적이었던 첫 인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콘진원에서의 인턴 생활은 첫 번째 인턴 때보다 '회사 생활'이 훨씬 더 익숙해져 있었고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혹여, 학우 여러분들께서 첫 인턴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일이 적더라도, 회사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업무 처리 과정 등을 옆에서 관찰하고 보조하는 것만으로도 큰 배움을 얻을 수 있고 보람찬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의 인턴 경험은 '공기업 취업'이라는 뚜렷한 취업목표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인턴 과정 중에 직원분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었고, 덕분에 진로설정에 있어서 많은 도움과 조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서 공기업 체계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행정 처리 과정을 배울 수 있었고 '지원사업 관리자'의 역할과 보람에 대해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인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전

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가 부족해 보였고, 선발인원인 두 명에 제가 속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턴지원에 도전하였고, 간절하게 원했던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턴 경험을 다행히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주눅이 들었다고 처음부터 인턴을 지원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값진 경험도 저에게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수없이 펼쳐질 소중한 도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불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의 저의 인턴 경험 후기 영상을 공유합니다.

<https://youtu.be/whVY2llcDoU>

스포츠토토코리아 건전운영팀 취업수기

중어중문학과 김○○ (2021.졸업예정)

기본스펙 및 대학생활	평균 평점	3.53
	외국어 성적	신 HSK 6급
	봉사활동	해외봉사 104시간
	자격증	MOS MASTER
	직무관련 아르바이트	한국마사회 PA
	기타	각종 대외활동(SK 나이트 챌린저, DB 대학생 기업경영 캠프, KOVO 마켓 서포터즈), 어학연수

<다양한 경험>

저는 1학년 때부터 대외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학교를 입학하기 전부터 이미 신 HSK 6급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여 1학년 때 해피무브 16기에 합격하여 중국 자양과 성도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스펙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저는 1학년 때 대진대학교라는 학교에 다니며 교내에서 성적이 나름 우수한 편이었고 신 HSK6급이 있을 정도로 중국어 실력도 우수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단원들을 보고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원들은 서울 상위권 대학에 대부분 재학 중이었고, 외국어 실력도 뛰어났고 다양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입대하면서 편입 준비를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SK 나이트 챌린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기획과 실무를 경험하면서 스포츠 마케팅이란 직무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활동을 하면서 편입 공부를 하여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편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보다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 흥미가 더 높아져 중국어는 대학교까지만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는 DB 대학생 기업경영 체험 캠프에 합격하여 2박 3일 동안 경영과 관련된 수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의 기업을 경영하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학기에는 교내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국 상하이에 있는 복단대학교로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는 KOVO 마켓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구단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굿즈를 판매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많은 채용 담당자, 인사담당자들은 직무와 관련된 일관된 경험과 스펙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일관된 경험과 스펙이 중요한 건 맞지만, 아직 직무를 정하지 못했다면 저와 같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무를 정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서류 및 면접 준비>

저는 어릴 때부터 취업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유튜버를 구독하여 시간이 날 때 자주 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싸담당자’와 ‘면접왕 이형’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리고 인턴과 정규직 채용이 나면 항상 지원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한국마사회 인턴, 코트라 인턴, 대학내일 인턴, AK 플라자 인턴 등 다양하게 지원했습니다. 서류에 합격한 경험은 1번뿐이었지만, 저학년일 때부터 지원하여 서류 탈락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기소개서를 많이 봐서 항목을 보면 무엇을 써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경험은 한국마사회와 스포츠토코리아가 전부였지만, 항상 유튜브로 준비를 해와서 막상 면접이 다가왔을 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토코리아 서류 합격 자기소개서입니다.

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책임감=신뢰]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은 상호 간 신뢰를 보증해주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감은 학교에서의 프로젝트, 봉사활동 등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사회활동부터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직업적 윤리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직업, 혹은 집단 내에서의 특정 역할을 맡은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항상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며, 더 나은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저는 타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항상 책임감을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가령, 저는 한국마사회에서 근무할 때 고객의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에서 경마관리직으로 근무했는데, 고객의 마권 환불 요청 관련 민원을 응대했습니다. 관련 규정을 확인한 결과 고객이 제기한 민원이 무리한 요청사항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지사에서 같은 이유로 환불을 받은 적이 있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시 시점이 마지막 경주가 종료된 이후여서 마감과 청소를 한 후 퇴근을 해야 했지만, 저는 제 퇴근이 늦어지더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고객을 설득하였습니다. 고객이 존중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최대한 정중한 태도로 경청하고 그분의 억울함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후 규정상, 그리고 제 권한상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없지만, 고객이 부당하게 느낄 수 있는 점, 그리고 다른 지사에서는 요청사항을 들어주었던 점에 공감하여 내부 회의 때 상사에게 해당 사항을 건의하여 해결을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하며 정중히 사과드렸고 고객도 이런 저의 태도에 납득하였습니다.

제가 스포츠토코 건전운영팀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이때처럼 어떤 일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스포츠토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지원하신 이유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취미였던 스포츠가 직업 선택의 동기로...]

저는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좋아했는데, 그 중 특히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동아리, 사회인 동호회에서 직접 뛰는 동시에 중고 엘리트 농구부터 미국프로농구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섭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이처럼 제가

농구 선수나 기술 그리고 전술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 베팅을 위해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지인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스포츠토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베팅을 통해 스포츠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 알게 되어 즐겁기도 했지만, 동시에 스포츠 산업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바로 불법 스포츠 도박 때문입니다. 불법 스포츠 베팅을 통해 병적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선수들을 직접 찾아가 폭언을 하거나 SNS를 통해 DM으로 협박을 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선수들이나 직/간접적으로 알고 지내던 선수들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한 번 쓰고 버리는 장기 말처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 너무 불쾌했고, 이것이 막연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동기를 갖게 해 준 첫 계기였습니다.

또 다른 계기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근무하던 저의 친형 때문입니다. 스포츠토토 유관 분야, 그중에서도 특히 도박 중독 분야에서 종사하던 형을 통해 센터에 의뢰되는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도박의 심각성에 대해 남들보다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이런 저의 일련의 경험들이 저를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 관련 직무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스포츠토토 건전운영팀에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동기를 갖게 된 초심 그대로 열심히 근무하여 관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하신 직무를 맡아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스포츠토토 활성화 통한 건전한 레저 증진과 체육산업 저변 확대]

스포츠토토 건전운영팀에 입사한다면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에 기여하고,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건전한 레저 및 체육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아마추어 및 프로스포츠 관람과 생활체육에 애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더 나은 체육 환경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관계자들이 홍보 및 영업을 하는 매체들을 수시로 감시하며 유효한 증거를 수집하여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동시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행정이나 기획, 홍보 등 기관의 다른 주요 업무들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유관분야 종사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추후에 건전기획팀에서 일하며 기획 업무도 수행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관련 캠페인을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기획 분야에 흥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저는 학 외에서 SK나이트 프로농구단 챌린저로 활동하며 구장 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린 캠페인’을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관중들이 장내에서 텀블러 사용 여부나 퇴장 때 클래퍼 반납 및 재사용 여부 인증 시 앱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경쟁 PT에서 1위에 선정되었고, 19-20시즌에 장내에서 실제로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스포츠토토 코리아에서도 W위시코트, Ready To Tomorrow 등 공익성을 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행 사업에 대해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에 역량을 키워 저만의 사업을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현재는 실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낮은 막연한 청사진이지만,

개인적으로 추진해보고 싶은 사업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권역별로 대학을 선발해 학내나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혹은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를 활용해 스포츠토토의 공익성과 건전한 레저문화에 대해 알리는 산·학연 사업을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면접은 자기소개서 기반의 인성면접으로 약 20분간 진행되었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압박 면접이 아닌 만큼 부담감 없이 봤으며 저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었습니다.

※ 면접질문

1. 지원동기
2. 성격의 장단점
3. 회사연혁
4. 다른 사람들이 본 자신의 성격
5. 컴퓨터 관련 자격증 유무
6. 모르는 것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는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지

<취업에 대한 조언>

저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을지는 준비가 얼마나 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으로 스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펙들 덕분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학년 일수록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고학년 일수록 직무를 빨리 정하여 필요한 스펙만 만들어 시간을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류 탈락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많이 쓰고 읽을수록 실력이 늘고, 서류에 탈락해도 손해가 아니라는 마음가짐으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준비해나간다면 목표했던 기업에 합격하실 거라 믿습니다.

해남자연농업 영농조합법인 취업수기

생각지 못한 취업 스토리

일어일문학과 박○○ (2021.졸업예정)

기본스펙 및 대학생활	평균 평점	4.06
	외국어 성적	JLPT 2급
	인턴 또는 현장실습	17년도 일본 쿠마모토 온천 50일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장애가정 아동 멘토링 9개월, 지역아동센터 1년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ERP 인사 2급
	직무관련 아르바이트	학과실 근로장학생 6개월
	기타	고깃집 아르바이트 1년 6개월

저는 남들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꿈꾸며 공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막연히 공기업을 생각했을 뿐, 진지하게 가고 싶은 특정 기업을 고민해보지도 않았고,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 번 쯤 계획하는 휴학은 노는 걸 좋아하는 저를 믿지 못해 하지 않았고, 학기 중에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취업 준비는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로 4학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학년이 된 작년 겨울쯤,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후기를 보았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같은 또래들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저를 비교하며 4년간 그냥 흘러버린 학교생활을 후회했고,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21년도 상반기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한 1년간의 비대면 수업은 저에게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 수월했던 성적평가방식 덕분에 컴퓨터 활용능력 2급과 한국사 1급을 딸 수 있었고, 이후 토익 9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브리타임 어플에서 한 회사의 사무직 모집 공고가 올라왔고, 취업난인 때에 경력 쌓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이력이었지만, 4년간의 모든 활동을 쏘아 이력서를 작성했고,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난생 첫 회사 면접에 정장도 구매했고, 면접 질문도 예상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문한 정장이 오기도 전에, 급작스럽게 면접이 잡혔고 15분 만에 준비하고 면접 보러 갔습니다.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등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었지만, 예상과 다르게 회사에 대한 소개와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해 여쭙보셨고, 면담처럼 진행된 난생 첫 면접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취업이 확정되어 바로 해남 본사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첫 회사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차후에, 사무직에 전혀 경력이 없던 저를 뽑은 이유를 여쭙니, 6개월간 학과실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1년 6개월간의 고깃집 아르바이트 경력을 보고 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력들은 사무직과 별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다는 점은 끈기와 성실성을 보여주었고, 6개월간의 학과실 근로 경력은 조금이라도 업무에 있어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했던 일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취업에 도움이 되었고, 헛된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깨닫게 되는 것은, 4년간의 대학생활과 전공은 배움보다도 취업을 위한 경로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듯합니다. 동아리나 대외활동 또한 하고 싶은 활동보다도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해야만 하고, 휴식과 여행을 꿈꾸던 휴학도 이제는 취업을 위한 시간으로 쓰여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부터 취업에 대한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한다고 하지만, 모든 일이 생각한대로 되지는 않듯이, 한번쯤은 계획에서 벗어나 충동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기회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한 목표가 없더라도, 무작정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속에서도 배움과 깨달음 또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최종목표는 여전히 공기업에 입사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직장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기로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여전히 따라할 자격증도 많고, 쌓아야할 활동과 경력도 많지만, 현재의 생활을 즐기면서 천천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쨌면 이곳에 만족하여 오랫동안 머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종목표만을 위해 노력하다가 너무 힘들 때면, 가끔은 목표의 중간지점에서 쉬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수기

작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중어중문학과 정○○ (2020.02.졸업)

기본스펙 및 대학생활	평균 평점	3.64
	외국어 성적	토익(720), 오픽(IH)
	인턴 또는 현장실습	KOTRA(현장실습, 2019.08 - 2020.01), 전남대학교 아시아문화협동과정 교육지원조교(2020.05 - 2020.12)
	봉사활동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통역, 지역아동센터 교육봉사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1급, 한국사1급, KBS한국어능력시험2- 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직무관련 아르바이트	영어학원(5개월), 유니클로(5개월), 근로장학생(3년)
	기타	부전공(경영학부)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높는데, 의욕은 생기지 않고 무기력함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후배들께 합격 수기를 씁니다.

1. 대학생활

대학 입학 후, 듣고 싶은 수업은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소위 ‘꿀강’은 듣지 않고 심리학, 철학, 사회학,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듣고 싶은 과목은 다 수강했지만, 막상 취업 시즌이 다가오니 그때부터 저는 방황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수강과목은 무엇이고 자격증은 무엇인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동기가 없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준비를 미뤘고 4학년 2학기를 허무하게 끝냈습니다. 취업에 대한 압박감은 높지만, 자기소개서를 쓰기가, 자격증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옛날 기억을 떠올려 서류를 작성하기가 두려웠고 ‘뽑는 사람도 적은데 어차피 떨어질 거야’라는 마음으로 지내고 지원을 미뤘습니다.

자신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특히, 공기업과 사기업 중에서 고민 중인 분은 자신의 성향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분위기를 좋아하는지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낮은 환경에서도 적응을 잘하는지 등을 생각하며 자격조건사항을 준비하시고 회사에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공기업으로 채용시장에 뛰어들고자 마음을 먹은 후, 서류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토익 720, 한국사뿐이었습니다) KOTRA 해외 현장실습에 무작정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아직 준비되어있지 않다’는 마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밀려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격증, 어학 점수 등 정량평가는 사람을 수치화하는 작은 단서일 뿐 자소서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든다면 좋은 결과를 보여 줄 것입니다.

저는 5개월간의 현장실습을 마치고 돌아와 그해 5월 전남대학교 아시아문화협동과정에서 8개월간 교육지원조교로 근무했습니다. 동시에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했고 계속해서 취업시장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학교를 벗어나지 않고서라도 좋은 경험을 할 기회는 아주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합격할지도 몰랐던 KOTRA의 해외 현장실습, 교육지원조교 경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채용의 서류와 면접전형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할 때,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꼭 살펴보세요. 학교와 그와 관련된 분들의 소개와 도움으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꼭 전남대 포털-취업 진로 페이지,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자주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2. 기관소개

처음 공기업 채용시장을 살필 때, 채용인원이 많은 회사는 당연히 눈에 잘 띕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기업이 많습니다.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공단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본사는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하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줄여서 심평원)은 건강보험료 지급 전 내용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과의 교류가 활발한 기관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 행정(인턴, 정규직) 직군은 전문직 고객을 상대로 민원업무를 진행할 가능성이 큼니다. 또한, 심사 및 요양직의 비율이 높고 여성 지원 비율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준비

1) 어학 점수와 자격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년인턴 전형은 외국어 어학 점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높은 토익 점수가 곧 합격의 지름길이기도 하지만, 이 기관은 애초에 처음부터 어학 점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기관 지원을 위해서 청년인턴전형에서만큼은 어학 점수를 갖춰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높은 토익 점수를 취득하지 않아, 좋은 오픽 등급이라도 갖고 있자고 생각해 괜찮은 오픽 등급을 취득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년인턴 서류 심사에서 어학 점수를 제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수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20년 하반기 청년인턴은 총 5명이었으며 10명이 서류 심사에 통과했습니다.

자격증은 서류심사에서 요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사 1급, 컴퓨터 활용능력 1급은 보유하고 있어야 안정적인 서류 심사에 안착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이한 것은 KBS 한국어시험과 국어능력시험에 가점을 부과했는데, 저는 2-등급을 몇 번의 도전 끝에 취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KBS 한국어시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다 보니 이번 전형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소서에서 자신이 없다면 기본적인 자격증 이외에 가점이 되는 자격증을 취득해 차별화를 두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자기소개서

보건 및 복지계열 기업들의 자기소개서는 어렵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은 청년인턴 전형임에도 직무 관련 경험사항(경험 및 경력기술서)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분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들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큰 힘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현장실습 등에서 자신이 쌓은 직무 관련 경험을 상세히 서술하지 않고 개조식으로 활동명, 기간, 업무 내용, 배운 점 및 결과 등으로 구성해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OO서포터즈 활동: 2020.01. ~ 2020.05.’ ‘담당 업무: 인스타그램, Facebook을 통한 기업 홍보 및 서포터즈 활동 홍보와 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경험을 최대한 담백하게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자소서에서의 각각의 문항의 성격은 지원 동기, 문제 해결, 대인관계, 직업윤리로 나누어져 있었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평가원에 대한 배경지식 및 최근 동향 등을 함께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작년 한 해의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보건복지부 및 산하 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원동기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업과 관련한 산업, 정책, 동향 등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얻었고 인터넷 뉴스를 검색할 때는 구글 뉴스를 이용해 최대한 많은 자료를 얻고자 했습니다.

3) 면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의 서류전형 합격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찾아보면 스터디 모임을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년인턴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면접 스터디를 구하는 대신, 저는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 문항을 바탕으로 하는 질문이었고, 마지막 질문이 평소 기관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면접 전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SNS를 이 기관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폈고 기업의 마스코트 등을 빠르게 파악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 담당업무

저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심사평가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부는 말 그대로 건강보험 금액을 의료기관에 지급 전 심사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부 인턴은 첫째로 자문위원의 심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합니다. 서류를 심사할 때, 환자 정보, 수술 부위, 날짜 등을 기록하고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자문위원분들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서류에 나와 있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도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자문위원의 서류 및 영상자료 심사 전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자료 업데이트 및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심사는 웹과 전산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위해 자료 업로드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는 “내가 의료 종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지만, 체계적인 업무 분담 및 균형 잡힌 업무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업무 일 수 있지만, 중요하며, 전문적

인 심사업무 프로세스상 분명히 인턴이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사(원)에 지원하시기보다는 지원(사)에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배울 수 있는 업무가 많고 바쁠 때도 있지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다고 일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니므로 개인 공부를 틈틈이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업무를 하면서, 자기계발도 놓치지 않는 수준의 무리 없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인턴 추천해 드립니다.